



독버섯 사행산업 불황먹고 자란다

최악의 경제난으로 서민들의 삶이 바다로 추락하면서 사행성 산업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다. 로또복권과 경마로 대표되는 합법적인 사행산업부터 '바다이야기'와 인터넷 도박 등 불법적인 사행성 게임까지 일확천금을 꿈꾸는 서민들이 도박중독에 빠져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

◇'인생역전' 로또복권 판매량 급증=27일 로또복권을 판매하고 있는 ㈜나눔로또가 공개한 시·도별 로또판매량에 따르면 올들어 10월 3째주 현재 광주·전남지역 로또판매액은 996억원(광주 505억원·전남 491억원)에 이른다. 환율폭등과 주가폭락이 시작된 지난 9월 로또복권의 주당 평균 판매액은 광주 12억2천900만원, 전남 11억4천900만원으로 당첨자가 없어 이월금이 생긴 6월과 8월 판매량을 제외하고 올해 최대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은 ▲지난 1월 주당 11억6천500만원(광주)과 10억9천700만원(전남) ▲3월 주당 11억6천900만원(광주)과 10억9천400만원(전남) ▲5월 주당 11억300만원(광주)과 10억2천700만원(전남) ▲7월 주당 11억

청소년 출입 당구장까지 침투 트럼프방 등 신종 도박장 등장

6천100만원(광주)·10억7천800만원(전남) 등으로, 금융위기가 확산된 9월 들어 판매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광산구 한 로또판매점 관계자는 "9월 들어 로또판매액이 하루 평균 15~20만원 가량 늘었다"며 "예전에는 보통 5천~1만원씩 구입하던 고객들이 수만원에서 10만원까지 무더기로 사가는 경우를 자주 본다"고 말했다. ◇경마장 입장객·매출 늘어=한

국마사회에 따르면 광주시 동구 계림동 장외발매소의 올 10월 현재 입장객 누적인원은 57만481명으로 1천698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주말(금·토·일요일)에만 개장하는 장외발매소의 1일 평균 입장객

은 4천754명에 달한다. 특히 최악의 경제상황을 보이고 있는 올 10월 하루 평균 매출은 13억8천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11억6천만원)과 비교했을 때 무려 20%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사행성 도박·인터넷 게임도=복권보다 사행심을 더 자극하는 도박장이나 도박 게임기계 운영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2006년 7월 '바다이야기' 파문 이후 한

동안 잠잠했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은밀하게 다시 고개를 들면서 도박에 빠져드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당구장에 까지 사행성 게임이 침투했고, 트럼프방과 보드카페, 보드게임방 등 신종 도박장도 등장했다. 또 '바다 이야기'와 같은 기존 사행성 게임이 온라인 버전으로 바뀌어 재판매되고 있는 등 온라인 도박 게임도 우후죽순처럼 늘어났다. 이에 따라 경찰의 사행성 게임장 단속전수도 지난해 하반기 100여건에 불과하던 것이 올 상반기에는 500여건에 이르는 등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서구 모 게임장 업주는 "경찰 단속으로 경마나 도박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다시 오락실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추세"라며 "어떻게든 한몫 잡아보려는 직장인들이 주로 게임장을 찾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영기기자 ahj@kwangju.co.kr



함평 국향대전 '국화 송례문' 28일 함평 자연생태공원을 찾은 관광객들이 지난 2월 화재로 전소된 송례문을 실물의 1/2 크기로 재현한 국화 조형물을 감상하고 있다. 올해로 다섯 번째인 국향대전은 29일 개막돼 다음달 23일까지 26일간 개최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수도권 규제완화 내일 발표...광주·전남 '직격탄'

光·우주·항공산업 타격

대기업 25개 첨단 공장 수도권 신·증설 허용

정부가 30일 산업·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사실상 허용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어서 광주·전남을 포함한 비수도권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이번 조치에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집중 육성 중인 광산업과 우주·항공산업까지 포함돼 이 지역 선도산업에 막대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를 열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국토이용체계 효율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산업 집적화 및 공장설립법' 등을 손질해 각종 공장의 설립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과 함께 대기업이 항공기·우주선 부품, 광섬유 등 25개 첨단 업종 공장을 수도권에 신·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담기게 된다.

따라서 광산업과 우주·항공산업을 지역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해온 광주시와 전남도로서는 산업인프라와 입지여건에서 수도권에 크게 열악해 향후 관련기업 유치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광 관련 기업의 경우 공장 신·증설을 억제해온 수도권 규제 법안 때문에 광주시 등지로 가지못해 이전해온 점을 감안하면 기업 유치는 물론 기존 기업들의 역이전 가능성마저 대두되고 있다. 광 관련 업체는 현재 수도권에 80%가 집중돼 있다.

또 고용 나로도에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우주·항공산업도 인프라가 사실상 전무한 전남지역의 입장에서 불 때 초기 산업 여건의 조성을 위해서는 관련 기업의 유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또한 수도권 규제 완화로 사실상 제동이 걸리게 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여건이 대단히 열악한 광주시와 전남도가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마저 정부가 수도권에 문을 열어 놓는 것은 지방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윤영기기자 zenfoot@kwangju.co.kr

1천억달러 외채 지급보증안 의결

국회 기획재정부

국회 기획재정위는 최근 정부가 제출한 1천억달러 규모의 은행 외화채무의 국가 지급보증에 대한 국회 동의안을 28일 의결했다. <관련기사 4·11면> 국회는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국내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이르면 29일 본회의를 개최해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동의안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18개 시중은행이 내년 6월 말까지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1천억달러 이내에서 3년간 보증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한편 이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시장은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28일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25.30원 급등한 1,467.8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1998년 4월6일(1,473.00원) 이후 10년 7개월 만에 최고치로, 최근 6거래일간 152.80원이나 뛰었다. 주식시장은 크게 요동쳤다.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52.71포인트(5.57%) 상승한 999.16으로 마감됐다. 코스피는 미국 증시 하락 등의 여파로 한때 901선까지 밀렸지만 연금급을 필두로 한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반전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과기원 2010년부터 학사과정 선발

학사과정 신설을 골자로 한 광주과기원 학기운영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광주과기원(GIST·원장 선우중호)이 2010학년도부터 학사과정 학생을 선발하게 됐다. <관련기사 8면>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광주과기원의 학사과정 입학자격 신설과 조교수 임용 자격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광주과기원이 고교 졸업자 뿐 아니라 고교 2학년 수료예정인 과학영재도 학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해 조기에 이공계 우수학생을 선발, 교육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고교 미 졸업자에 대한 입학자격 부여는 학칙에 따라 운영되는 광주과기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가 맡는다. 개정안은 또 조교수 임용자격을 '박사학위 취득 후 연구실적 연수나 교육경력 연수가 2년 이상'에서 박사학위 소지자이면 바로 조교수에 지명할 수 있도록 완화해 조기에 우수인력을 교수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과기원은 시행령 개정으로 학사과정 학생 양성에 필요한 법령이 완비됨에 따라 2010학년도부터 학년당 100명씩 정원 400명 규모의 학사과정을 개설할 수 있게 됐으며 2010년 3월 첫 입학식을 개최할 계획이 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YB윤도현밴드 광주콘서트 2008. 11. 29 SAT 7:30PM, 30 SUN 5:00PM 광주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공연문의 062-220-0541, 1588-0766 티켓구매: 티켓마루, 티켓링크, 옥션티켓